



豚자가라사대...

잘못된 돈사환경이 또 다른 질병을 만들

돼지에겐 여러 가지, 참으로 많은 질병이 있지만 특히 다루기가 어려운 분야는 번식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농장에서 자주 접하는 유사산 문제나 이제 또 다시 튀어나올 계절성 번식장애 등의 문제, 질루의 문제 등도 농장마다 그 증상이 다양하고 또한 그 원인이 가해지는 시점과 종류도 달라서 현장에서 만족스러운 진단을 내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군요.

상당수의 사양가는 유사산의 문제가 나올 때 그저 유사된 태아랑 해당 모돈의 혈액을 뽑아서 괜찮은 실험실로 보내면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 경험만 보더라도 열에 여덟아홉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는 식의 알쏭달쏭한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으니 결코 쉬운 것이 아니겠지요.

더욱 더 한심한 건 설령 운 좋게 유사산의 원인을 규명했다 하더라도 만일 이것이 특정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것이라면 이후의 효과적인 대처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번식장애에 대한 원인은 이러한 일단의 병원체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비감염성 원인, 즉 돈



황 윤 재 팀장
강원양돈농협 수의팀

사나 농장의 환경상의 문제나 사양관리, 사료 등의 원인에서 오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험실 검사로 판명 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비감염성 원인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루를 동반한 초기 유사산이 만성적으로 나오는 농장을 가다

지난 두어 달 사이에 질루를 동반한 초기 유사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인공수정을 포함한 교배 후 정상 재발정이나 20일 이후의 재발정을 호소하는 농장을 두 군데 돌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농장 모두 관리자를 두고는 있었지만 농장주가 직접 농장 일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특히 분만사를 포함한 번식관련 부분은 비교적 꼼꼼하게 자신이 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한 곳은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리자세가 돋보였는데 만성적으로 임신사에서의 질루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 혹시나 자신의 관리부실 또는 기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무척 노심초사 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오우! 지차스! 연세도 지긋하게 드신 양반 같은데 책임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린 오빠의 이런 열렬한



당성을 주야장창 학습해야 합니다!)

그 농장장은 문제의 농장이 세워지는 초기에 들어 와서 길지는 않지만 실상 농장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양반이었는데 나름대로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배 후 질루와 재발정 문제가 오래 전부터 해결되지 않아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더군요. 전체 교배 두수 중에서 자연교배의 비율은 약 15~20% 정도 인데 처음엔 수태지의 문제로 생각해서 수태지의 포피 세척과 소독에도 많은 공을 들였지만 그 증상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고 인공수정용 정액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실험실에 의뢰하여 세균검사와 정액의 활력검사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또 다시 머릴 싸매고 고민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머리에 백발이 성성한 것이 아무래도 이런 스트레스 땀시...) 그래서 최근에는 이유하는 모돈마다 지속성 항생제를 한번씩 주사하고 인공수정이나 자연교배를 시킨다고 하는데 효과가 조금 있다고는 말합니다만 어딘가 자신이 없어 보이더군요.

현장을 두루두루 둘러보고, 이런 저런 질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림 유사산인 질루, 재발정에 관련한 기록사항을 좀 보여 달라 하였더니 '그까이 꺼, 대~충 머릿속에 있지유' 하는데 조금 답답하게 되더군요. 하긴 어지간한 농장에서는 기록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걸 아니까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이 농장의 골 때리는 시츄에이션을 요약하자면 1)산차별 발생률의 차이가 별로 없다. 2)질루가 보이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재발이 온다. 3)인공수정과 자연교배 간의 차이도 없다. 4)모돈이 아프다든가

하는 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정도였습니다. 사실 질루의 문제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돈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분만 직후 며칠, 교배 시 또는 교배 후 4~5일간에 나오는 경우는 정상적인 것으로 봐야 하지요. 그러나 이 농장의 경우는 교배 후 2~3주가 지나면서 발생하고 또 이렇게 된 임신돈들은 거의 재발하게 되니 문제였습니다.

돈사환경상의 문제로 질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머리에 쥐가 나서 좌뇌와 우뇌를 온통 헤집고 다닐 상황이 되면 우선... 시원한 박하담배 한대를 태워서 열정을 냉정으로 바꾼 다음, 깊이 생각 하는 척 하면서 현장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요.(컨설턴트는 때로 실력에 앞서 품생품사로 주변 분위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임신사를 살펴보다가 시설 상의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임신스톨의 바닥이 다른 대부분의 농장의 경우에는 전면슬랏이나 부분적으로 소위 동반이 부분이 배뇨나 배분이 잘 되게 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 농장의 경우에는 그냥 평사로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이 농장에서는 유사 이래로 단 한번도 바닥 청소(수세)를 해보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구요. 대부분 바닥의 상태가 축축하게 젖어 있거나 임신돈의 후구가 지저분하게 보였습니다.

질루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에서 돈사 환경에 관련된 사항은

- 1) 배수불량, 연속 사육되는 돈사
- 2) 교배사의 과도한 습기, 불결, 청소 불량

3) 모든이 견좌자세(개 처럼 앉는 자세)로 앉아야 할 만큼 좁은 스톨시설

4) (이 농장처럼) 후보돈을 스톨에서 사육하는 농장

- Managing pig health and the treatment of disease에서 발췌

등 입니다만 이 농장의 경우는 위의 사항이 거의 모두 해당되는군요. 그래서 해결방법으로 1)일단 지금보다 2배 정도 스톨의 돈분 처리를 자주하게 하였고, 2)가능하다면 빈 스톨은 주변 스톨이 젖지 않게 하면서 수세를 하게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입식시키도록 하게 주지시키고, 3)분말살포용 소독약을 스톨바닥 뒤쪽에 뿌려서 건조함과 동시에 소독 효과를 보도록 했고, 4)교배는 꼭 외음부를 (소독약물이 첨가되지 않는)일회용 젖은 수

건으로 깨끗이 닦은 후 실시토록 했지요. 실상 이런 관리방식의 개선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터인데(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끈한 항생제 처방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좀 더 가시적인 효과를 신속하게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약제를 처방하였습니다. 1)용돈의 포피계실에 유방염연고의 주입, 2)번식돈 전체에 약 3~4주간 사료첨가용 항생제 치료용량 투여, 그러나 용돈에게 항생제 주사는 그야말로 성질 버릴까봐 권하지 않았구요. 또 하나 인공수정용 카테타를 이용하여 질내 항생제 주입은 기술적인 오류가 있을까 보아 얘기하질 않았지요.

치료 효과가 어떠했나가요? 결과가 시원치 않았으면 제가 이 얘길 여기다 꺼냈겠습니까? **양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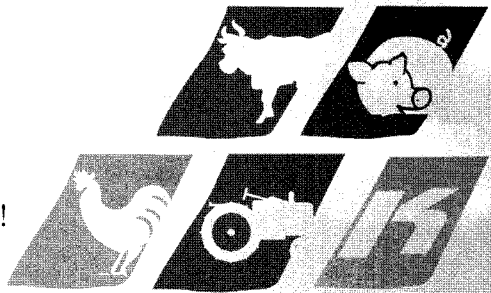
행사안내

KISTOCK 2005

Korea International Livestock Expo 2005

성공비즈니스와 축산발전의 미래를 여는 국내유일의 박람회!!

KISTOCK 2005 와 함께 하십시오.



비즈니스 박람회

비즈니스센터 운용
해외투자단 유치
대출인금융 알선

체험 박람회

소독설비,
분뇨처리 시설
등을 직접체험

참여 박람회

종축경매,
축산물 시식회,
화술행사 등에 참여

유성 IC

북대전 IC

엑스포
공원사거리

시청방향

대전무역전시관

MBC방향

주최 (사)대한양돈협회(주관단체) (사)한국농업경영학회
(사)대한양돈협회 (사)전북농업대학
(사)한국축산환경학회(심기계협회)

후원 : 농림부, 농협중앙회, (사)한국사료협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화: (02)571-9751~5(박동희 사무국장), (042)365-3000, 019-258-2361

팩스: (02)576-5073